

2016년 6월 27일 새벽말씀(편집본)

금주 말씀을 통해서, 모두 작업을 하다가 작업도 작업이지만 말씀을 듣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지만, 성서의 흐름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죽 훑어보면 ‘인간 생각’으로 시대가 망해 버렸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생각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라 더니 만,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 요나 같은 선지자도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간 생각인데, 외쳐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동안 한 짓을 보면서도 대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인간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하나님 생각으로 가서 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가서 해 보니까, 외쳐 보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외치면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또 사악하고, 또 못마땅한 니느웨 성이었지만, 죽도록 가서 힘껏 외치니까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감동해서. 우리가 죽도록 하게 되면, 열심히 죽도록 외쳐보면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돌아올 것 같아도.

모세 때도 그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자기 민족을 붙잡아 매고 내놓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일단 결론은 해 보니까 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상적인, 그야말로 표적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과, 오히려 불가능으로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때는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생각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겨루고 못 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못 한다고 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를 갖고서 모두 대하지만,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어 인간의 수천 배, 수십만 배, 수억만 배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까까지도 안 되고, 어제까지도 안 되고, 나가서는 수년 동안 수십 년까지 안 됐는데, 이거 될 수가 없다. 내일 되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면 바로 내일, 바로 오늘부터 즉시 실행되고 돌아가고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이 겪었겠지만 우리 마음을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접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 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역사 안 하십니다. 오직 인간은 어떤 입장과 같은가 하면,

개미 하고 사람이 생활 때, 개미가 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합니다. 사람이 포클레인 가지고 서 있는데.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삽을 갖고 서 있는데 개미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입장과 똑같습니다.

지도자들도,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게 하나님 생각이나?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자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밀어붙이듯이, 개미 집을 없애듯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아예 박멸해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생각도 안 하십니다. 하도 작은 일이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일하면서 개미를 없앤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하도 작아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도서 작아서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그것이 기억나지, 그냥 그런 상태에서 하면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그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억해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개미 중에 한 마리가 자기 몸뚱이로 기어 올라오니까, ‘아 이 개미 봐?’ 하고서 쳐다보고 하지, 그 엄청난 개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면하고,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만들어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서에 기록 된 바 되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기, 그리고 역사의 남아지기,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기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인간을 크게 보지를 았았습니다. 벌 거지(벌레)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계통을 거쳐 왔고, 그 후에 하나님 주관 권에 왔을 때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죽는다고 지구촌의 누가 애석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의 인간의 슬픔의 순간에 지나지 았고, 누가 그리 크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거지 한 마리가 죽는데 뭘 크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 산 속에서 벌 거지 한 마리가 겨울 얼어 죽는 것,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얼어 죽었다 해도 누가 기억하겠어요?

작년 겨울에 벌레가 얼마 얼어 죽었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기억 안 하잖아요. 뭘 그것을 기억하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역에서 많은 개미가 죽고, 많은 벌레가 죽어도 그것을 문젯거리로 삼습니까? 누가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레가 많이 죽었다고.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로, 밀림 속의 한 벌거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한 존재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대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깐 하나님이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개미에게 밧줄 잡아당기라고 하면, 그것을 잡아당기겠습니까. 안 잡아당기지요. 들지도 못하는데. 한다고 가서, 개미가 가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쳐다보겠습니까. 사람이 잡아당겨 주지.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시고 일을 하시고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때에, 이상하게 해지거든요. 아까는 못한다고 했는데, 해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실천이 되시고, 우리의 권능 자가 되셔서 우리 속에서 벌써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자체로 일을 할지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지가 무슨 초능력자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컵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지. 가서 옮겨야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가 안 하면 안 한다!

야곱도 요셉도 모두 그렇게 진행 중에 충성을 다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가만히 성서의 흐름을 보세요. 열심히 진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인데 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90% 일하신다고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90% 일 하고, (인간이) 열심히 한 것이 10% 정도 차지할까. 10%도 인간에게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10%했다는 것은 참 많이 한 것입니다.

너무 조금 잡아 놓으면 아예 일을 안 할까봐,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너무 일을 안 할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10의 1조, 10의 1, 책임분담!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데 사실상 10분의 1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개미가 우리의 10분의 1을 한다면 많이 한 것이잖아요. 그런 % 수를 생각 안 해 봤어요?

‘인간이 할 일이 너무 많구나.’

10분의 1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일하는 것을 개미가 10분의 일을 한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10

만분의 일이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10분의 1을 개미가 못합니다. 포클레인을 갖고 파 대는데, 1조억만 분의 1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분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늘 앞에 10분의 1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비율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만 거기에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 볼진대, 상상도 못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합니다.

개미가 우리가 뛰어가는데 따라올 수 있습니까? 못 따라 옵니다. 죽어도 못 따라 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등에 업히든지 등허리에 업히든지 하면 따라가집니다. 그러면 따라가지는 것입니다. 업히는 것은 책임분담으로 큰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미는 뛰어간다고 매일 아침마다 연습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100미터 연습을 하고, 1000미터 연습을 하고, 마라톤 연습하고. 그래도 못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해봤자 하늘 앞에 다 못 간다.”

“원리원칙으로 한다고 될 것 같으나. 결국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지시가 필요하다.”

개미가 아무리 마라톤 연습을 해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1000분의 1을 못 따라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개미는 그럴 것 없이, 인간을 올라타고 가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지 말고. 우리 생각으로 하게 되면 모순이 많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어도 이해가 가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너무 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높다.” 중심자의 생각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만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있고, 인간과 개미 차이가 있듯이 중심자의 생각과 따르는 자의 생각도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중심 자가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온전해지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 할지어다.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 진리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오니 이들이 잘되고 형통

함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의가 이들에게 충만 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수고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신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이 내려가서 다시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온전함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영원 할지어다.

흑암과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들이 모두 감을 잡고 그리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잘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해서 모순 없게 해 주시고, 게으르면 아무래도 앉아서 머리만 굴리게 되고, 또 힘이 없으면 앉아서 생각만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해 주시고, 뛰고 달려서 힘줄을 튼튼케 하고, 말 힘줄같이 타조같이 힘 있는 다리를 갖고 뛰고 달림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두 잘되고 형통되며, 성지 땅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모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풀도 치고 잡초도 치고 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더 멋있게 가꿀 용의가 있으니 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들의 마음에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 가운데의 잡초를 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뜻에 합당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들을 축복하며 영육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뜻있게 사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나의 빈 평안과 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의와 생각이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